

강설량이 많은 요코테의 사과 농장과 선후지 이야기

일본의 사과 ‘후지’는 단맛과 씹는 맛이 좋은 식감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품종입니다. 일본에서 수출되는 사과의 80%를 후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후지가 개발된 아오모리현은 지금도 주요 생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150km 정도 남쪽에 있는 아키타현 요코테시에서도 혹독한 육성 환경 속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활용해 후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요코테의 사과 재배 역사

사과는 수천 년 전부터 중앙아시아에서 재배되어 온 과일입니다. 한편 일본에서 현재 일반적으로 재배되는 사과는 1871년에 미국에서 도입된 품종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농촌 지도자인 이토 겐키치(1846~1908년)가 요코테에서 처음으로 사과 묘목을 재배했습니다. 1892년에는 동료인 이시카와 리키노스케(1845~1915년)가 현 내 각지를 돌면서 사과 농가들이 각각의 사과를 서로 평가하는 품평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시카와 리키노스케는 그곳에서 모인 사과의 특징과 재배 방법 등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그는 지역마다 제멋대로 이름 붙여진 품종명을 통일하는 일에도 노력했고, 이러한 성과를 정리한 서적 『苹果品定 (사과 품정)』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농가가 사과를 재배할 때 참고하거나 품종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할 때 쓰는 입문서가 되어 아키타에서는 사과 재배의 기본으로 여겨지게 됐습니다.

요코테의 사과 재배지는 오우 산맥의 기슭에서 남서쪽으로 조카이 산을 바라보는 동쪽 구릉 지대에 있습니다. 서향의 완만한 경사면에 심어진 사과나무는 위쪽에 자라난 나무들의 그늘에 가리지 않고 양지바른 곳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봄, 여름, 가을에 걸쳐 최적의 일사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배수성이 좋은 충적토의 토양은 빗물이나 눈이 녹아 흐르는 물을 머금지 않기에 뿌리의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여 뿌리가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연간 평균 강수량이 1,740mm 이고 2m에 달하는 눈이 쌓일 때도 있는 기후를 지닌 요코테에서 이는 굉장히 중요한 재배 환경입니다.

선후지의 탄생

1939년에 재배가 시작된 ‘후지’는 해충과 자외선으로부터 과일 껍질을 보호하기 위해 일일이 종이 봉지에 넣어 재배하였습니다. 햇볕을 너무 많이 쬐면 사과의 표면이 손상되어 껍질의 광택이 줄어듭니다. 봉지에 재배한 사과는 보기에는 맛있어 보이지만 햇볕을 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햇볕을 쬐면 사과는 단맛이 나지만 봉지에 재배한 사과는 봉지 없이 재배한 사과보다 신맛이 납니다.

햇빛과 단맛의 관계는 1965년에 히라카 과수 농협의 회원들에 의해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두 달 동안 미국의 사과 농장을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미국의 골든 딜리셔스는 봉지를 씌우지 않고 재배하기에 그들은 그 단맛에 놀랐다고 합니다. 요코테의 농가는 단 사과에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고,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봉지없는 재배를 도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겉모양보다 단맛과 풍미를 우선시한 완전히 새로운 브랜드 콘셉트를 농협에서 확립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단순한 재배 방법의 변경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요코테의 사과 농장에서는 처음에 골든 딜리셔스를 재배했었지만, 시장성이 높고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도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후지'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봉지 없는 새로운 품종은 햇볕을 쬐어 더욱 달콤한 사과가 되기에 '선(SUN)후지'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지역 특유의 사과 재배

세계 각지의 사과 농가들은 사과나무를 서리와 가뭄으로부터 보호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요코테의 사과 농가를 가장 위협하는 요소는 폭설입니다. 요코테시의 연간 평균 적설량은 약 8m에 달합니다. 이는 북반구에 있는 강설량이 많은 도시 중 하나인 아오모리에 필적합니다. 그렇기에 겨울에 대비하여 사과나무 보호 대책을 시행하는 것은 사과 재배의 필수 과정입니다. 사과 품종 대부분은 기온이 영하가 되는 아키타의 겨울에 견딜 수 있지만, 나무에 적절한 대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폭설로 가지가 부러져 버립니다.

사과 농가 대부분은 접목이라는 재배 방법으로 사과를 재배합니다. 접목이란 어느 한 품종의 줄기와 가지(접수)를 다른 품종의 밑나무(대목)에 접합하는 기술입니다. 왜성 품종(키가 작은 과일나무)의 대목에 열매가 열릴 사과나무의 줄기와 가지를 접합합니다. 이에 따라 열매가 대량으로 맺히지만 나무의 높이는 2m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키가 작기에 안전하고 쉽게 수확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요코테의 사과 농가에서는 눈 때문에 가지가 부러지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을 시행합니다. 키가 작은 나무는 와이어를 이용해 가지가 밑으로 향하도록 유도합니다. 위로 향하는 가지는 눈의 무게로 부러질 수 있지만, 밑으로 향하는 가지는 구부러질 뿐 부러지지 않습니다. 또한 키가 큰 나무에는 가지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설치합니다. 겨울 동안 나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쉽지는 않지만, 맛있는 사과가 열렸을 때 그 노력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